6년의 기다림…광주FC, 2247일 만에 전북 이겼다

이순민 시즌 첫 골…2-0 승리
시즌 8승째, 단숨에 5위 도약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광주FC가 준비된 플레이로 전북현대를 상대로 2247일만에 승리를 만들었다.

광주는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K리그1 19라운드 홈경기에서 이순민과 이건희의 시즌 첫 골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1승 5무 14패, 이날 경기 전까지 전북에 단 1승 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광주가 2017년 4월 30일 1-0 승리 이후 2247일 만에 기록한 값진 승리였다.

단 페트레스쿠 전북 신임 감독의 K리그 데뷔전으로도 눈길을 끈 이 경기에서 전북은 20초만에 나온 한교원의 슈팅을 앞세워 거세게 광주를 공략했다.

전반 9분에는 하파 실파의 슈팅을 골키퍼 이준이 몸을 날려 막았고, 전반 13분 상대에게 공을 뺏기면서 맞은 역습 상황에서도 이준이 나서 이동준의 슈팅을 차단하는 등 아찔한 장면들이 있었다.

아쉬운 순간도 있었다.

전반 18분 토마스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은 뒤 수비진을 몰고 전북 골대 앞까지 질주했다. 하지만 마지막 슈팅이 골키퍼 김정훈에게 막혔다.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광주는 바로 이어진 세트피스 상황에서 준비된 플레이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오른쪽에 있던 김한길이 뒤로 공을 보냈고, 이민기가 좌측에 있던 두현석에게 공을 넘겼다. 두현석은 골대 앞으로 길게 공을 보냈고 문전에 있던 이순민이 뛰어올라 백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1-0의 승부가 펼쳐지던 후반 22분 광주가 다시 한번 환호했다.

후반 20분 투입된 정호연이 공을 뺏은 뒤 왼쪽에 있던 토마스에게 공을 보냈다. 토마스가 문전으로 보낸 공이 엄지성의 발에 닿지 못하고 흘렀지만, 뒤에 있던 김한길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었다.

이날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김한길의 '자축골'이 되는 것 같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경합과정에서 정호연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골이 무효가 됐다.

아쉬운 골 취소로 1점 차의 긴박한 승부가 계속됐지만, 후반 41분 토마스를 대신해 투입된 이건희가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후반 7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후반 46분 광주가 두 번째 골을 장식했다.

전북 진영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기회를 엿보던 광주. 정호연이 이강현이 원터치로 찔러 준 공을 잡아 방향을 바꿔 전진한 뒤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 있던 이건희에게 패스를 했다. 공을 잡은 이건희가 터닝슈팅을 시도했고,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왼쪽 맞은 뒤 골망을 흔들었다.

다급해진 전북의 거친 플레이가 이어졌지만 침착하게 남은 시간을 잘 지킨 광주는 승점 2점 차였던 전북을 따돌리고 5위로 점프했다.

시즌 첫 골로 결승골을 장식한 이순민은 "중요한 순간 중요한 골이 만들어졌다. 정말 훈련을 많이 했다. 생각한 대로 약속한 대로 골이 나왔다"며 "(두)현석이가 공을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곳보다 공이 조금 더 뒤쪽으로 왔다. 넘겨만 놓으면 골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 홈팬들이 많이 오신 상태에서 넣은 골이라 더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좋은 패스로 시즌 6번째 도움을 기록한 두현석도 "약속했던 것이라 거기에 공 올려놓으면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이겨서 기분 좋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이순민(44번)이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두현석의 패스를 백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만들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IA '신형 엔진' 김도영이 뛴다

복귀 하자마자 멀티히트·도루·득점
"지금처럼 잘 하는 모습만 보여주겠다"

업그레이드를 끝낸 김도영이 KIA 타이거즈의 '신형 엔진'으로 뛴다.

김도영이 화려한 복귀를 했다. 23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3루수로 부상 복귀전에 나선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기록한 뒤 도루까지 성공했다.

김도영은 이우성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안타, 도루, 득점을 동시에 만들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만들면서 멀티히트에 성공한 김도영은 24일 경기에서는 2루타 2개로 멀티히트를 만들었다. 또 김도영의 출루는 모두 득점으로 연결됐다.

25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세 번째 경기는 치르지 못했지만 두 경기 만으로 '슈퍼 루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범경기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던 김도영. 2022시즌 경험을 통해 지난해와는 달리 자신감도 있었고, 한 단계 발전된 기량도 보여준 만큼 부상은 팀은 물론 개인에게도 뼈아팠다.

김도영은 지난 4월 2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홈에 쇄도하다 왼쪽 새끼 발가락이 골절됐다. 앞서 개막전부터 안타를 기록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3안타까지 만들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좋았던 만큼 김도영은 부상으로 크게 상심했다.

김도영은 "시범경기에서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부상 전에 안타를 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부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며 "두 경기이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격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잘 되고 있다.

김도영은 "감이 좋아서 그런지 2군에 있을 때처럼 공이 잘 보인다. 2군에서 볼도 많이 보고 몇 게임 뛰다 와서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 올해 초 캠프 때 좋았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타격)사이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타격 폼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어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오랜 시간 쉬었지만 팬들 함성과 긴장감이 가득한 1군 그라운드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위기의 팀 상황으로 김도영에게 쏠리는 시선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김도영은 "오랜 만에 오면 긴장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편안했다. 함평에도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편했다. 부담은 없고 밀져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했던 게 좋은 성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주루는 김도영의 '특급 무기'이지만 부상으로 긴 공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하다.

김도영은 "복귀한 날 형우 선배님이 (걱정 되는 마음에) 100%로 뛰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다. 70%만 뛰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 나가면 환호성 듣고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것 같다. 쿠에바스 선수 초구를 지켜봤는데 킥이 커서 뛸 만하겠다 생각해서 뛰게됐다"고 웃었다.

그라운드에 오르면 거침 없이 달리게 되지만 이번 부상으로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웠다.

김도영

김도영은 "재활 도중에도 조절하는 게 힘들었다. 일부러 조심조심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연차가 쌓이면 될 것 같다"며 "재활하면서 성범 선배님한테도 많이 배웠다. 선배님 보면 잘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안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수비는 경험을 통해 더 세밀하게 가다듬을 생각이다.

김도영은 "수비는 시합을 많이 나가면서 경험해야 한다. 펑고만 계속 한다고 해서 감을 찾는 건 어려우니까 시합 뛰면서 감각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 때문에 세 달간 못 보여준 것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다. 앞으로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지금 딱 좋은 모습을 유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페퍼스 아헨 킴 감독, 단 한 게임도 치르지 않고 사퇴

부임 4개월 만에 "개인 사정"

광주 AI페퍼스 아헨 킴(37·사진) 감독이 단 한 게임도 치르지 않고 부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페퍼스 구단은 2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아헨 킴 감독은 최근 가족과 관련한 개인 사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며 "아헨 킴 감독은 24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아헨 킴 감독이 선수단과 곧잘 소통하는 등 구단과 불협화음이나 마찰 등은 전혀 없었다"며 "당분간 팀 훈련은 이경수 수석코치가 맡을 예정이고, 가급적 빨리 새 감독을 국내외에서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아헨 킴 감독은 지난 2월 페퍼저축은행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지난 3월 입국한 아헨 킴 감독은 자유계약선수(FA) 영입,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을 지휘하며 새 시즌을 준비했다.

아헨 킴 감독은 지난 5월부터 팀훈련을 지휘해 왔다.

그러나 아헨 킴 감독은 부임 4개월, 입국 3개월 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페퍼스가 신임 감독을 조기에 선임하더라도 자신의 색깔을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헨킴 감독이 자신이 추구하는 배구에 맞춰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이다.

페퍼스는 다음달 29일 개막하는 2023 코보컵에도 감독 공백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우려도 있다.

페퍼스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단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엔 자유계약선수(FA) 박정아를 영입한 뒤 보호선수로 묶지 않은 이고은을 한국도로공사가 지명하자 한국도로공사에 보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오지영을 영입하면서 GS칼텍스가 제안한 경기출전 금지 조항을 받아들여 팬들의 비난을 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민재 몸값 865억 추정 …손흥민 추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2022-2023시즌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나폴리)의 몸값 추정치가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을 추월했다.

축구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럽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의 추정치에 따르면 김민재의 시장 가치는 6000만 유로(약 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올해 3월 김민재의 시장 가치를 5000만 유로로 평가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15일에 6000만 유로로 높였다.

김민재는 1년 전 같은 평가에서 1400만 유로였는데 1년 사이에 4배 이상 몸값이 오른 셈이다.

반면 손흥민의 경우 20일 발표된 업데이트 결과 5000만 유로로 조정됐다. 한국 돈으로 713억원 정도다.

올해 3월 6000만 유로였던 손흥민은 김민재와는 반대로 3개월 사이에 1000만 유로가 내려갔다.

손흥민은 이 사이트에서 2020년 12월 9천만 유로까지 기록한 바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는 7500만 유로로 김민재보다 5배 이상 비싼 몸값이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나도는 김민재는 전 세계 선수들 가운데 59위에 해당하는 시장 가치를 기록했고,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1위다. 손흥민은 79위다.

2022-2023시즌 나폴리를 세리에A 정상에 올려놓은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이적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독일 신문 빌트는 23일 "김민재가 소셜 미디어에서 나폴리 소속을 지웠다"며 바이에른 뮌헨으로 곧 이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또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측이 포르투갈에서 협상 중이라고도 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행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인수에 나선 카타르 자본이 구단주가 되면 10억 파운드를 선수 영입에 쓸 것"이라며 김민재를 영입 가능 선수 명단에 포함했다.

김민재는 15일부터 3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7월 6일에 훈련을 마친다. 이후 다음 시즌 행보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